

적멸보궁

적멸보궁 (寂滅寶宮)이란?

‘온갖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보배로운 궁전’이란 뜻이며, 석가모니 부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소장처 앞에 예배를 올리는 장소로 사용되던 배전(拜殿)을 의미합니다. 이곳 오대산국립공원 중대(中臺) 적멸보궁은 643년 신라 선덕여왕때의 고승 자장율사(慈藏律師)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자장율사(慈藏律師)는 문수보살(文殊菩薩)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지는 석가모니의 진신 사리를 천하의 명당이라 여겨지는 지금의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자리에 봉안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오대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문수성지(文殊聖地)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순례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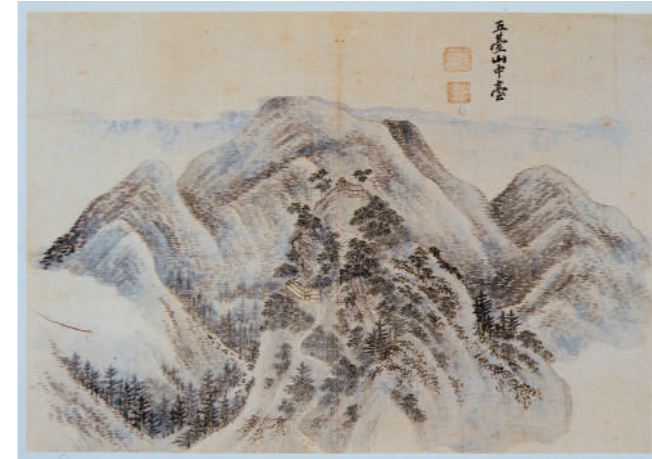


자장율사 진영(월정사 성보박물관)



적멸보궁

중대(中臺) 적멸보궁은 오대산의 비로봉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풍수학적으로는 비로봉을 주산으로 상왕봉은 청룡, 호령봉은 백호, 동대산은 주작으로 봅니다. 적멸보궁이 입지한 곳은 오대산의 다섯봉우리가 아늑하게 감싸듯 안고 있는 형국이며, 풍수지리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비로봉과 주변의 지형은 용의 형국으로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여겨지며, 특히 적멸보궁이 자리한 곳은 용의 눈에 해당하여, 적멸보궁에서 나오는 약수를 용안수(龍眼水)라고 합니다.



김홍도가 그린 오대산 중대(금강사군첩)

택리지(擇里志)의 저자인 인문학자 이중환(李重煥)과 조선 영조 때의 문신이자 술한 설화를 남긴 어사 박문수(朴文秀)가 이곳을 찾아 오대산과 적멸보궁의 지세에 감탄, 최고의 명당이라 극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김창흠, 송광연, 김시습 등 많은 문인들이 적멸보궁의 지세를 보고는 그를 감탄하는 글을 남기곤 했습니다.

- 中臺占位正 중대는 산 가운데 차지하여
- 擅勝一山中 산 속의 경승 독차지 했으니
- 龍飛萬嶺拱 용이 나는 듯 모든 산 인사하며
- 鷲蹲孤閣崇 독수리 웅크린 듯 누각은 높네 (김창흠 『삼연집』 일부)

독특한 건축 형태

적멸보궁의 불전에는 불사리를 봉안하였기 때문에 부처가 항시 그곳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불상이나 후불탱화를 봉안하지 않습니다. 단지 불단만을 갖추고 법당 바깥쪽이나 뒤쪽에 사리탑을 세우거나 계단(戒壇)을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대산의 중대 적멸보궁 역시 마찬가지로 불전에 불상이나 탱화없이 불단만 있으며 불전 뒤쪽 봉긋한 언덕의 사리를 봉안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곳에 탑을 새긴 비 하나 세워놓았을 뿐입니다.



적멸보궁 외부



적멸보궁 불전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은 다른 사찰이나 적멸보궁과는 다르게 구조가 독특한 내외부 이중구조의 불전 건축물입니다. 건물 내부와 외부를 받치고 있는 기둥 열은 독립된 구조체로서의 역할만 하며, 서까래만 공유하는 독특한 건축 구조물입니다. 이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건물이 시대를 달리하여 내부 공간을 확장 또는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내부에 건립된 건축물은 구조나 장식적인 측면에서 조선 전기의 다포식(多包式) 목조건축의 양식을 잘 유지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만큼 건축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남무회, 2013, 자장과 한국불교의 보궁신앙, 한국불교학회> <이원석, 2013,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의 역사, 한국불교학회> <문종덕, 2020, 풍수지리와 사찰입지에 관한연구 -5대 적멸보궁을 중심으로-, 세명대학교> 제작 담당-자연환경해설사 김봉정 감사-국립국어원 교수 김주미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033) 332-6417



중대 적멸보궁 주변 탐방로



사리신앙의 성행을 이끈 불사리(佛舍利)

석가모니 다비(화장) 후 나온 사리를 불사리 또는 진신사리라 하여 법신으로 여겨 예경하였습니다. 열반에 든 석가모니의 사리는 8개 부족에 분배되었고, 그중 500과가 중국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부처 다비 후 사리를 분배하는 모습(월정사 성보박물관)

석가모니의 사리가 신앙으로 인식된 것은 기원전 3세기 중엽 아소카왕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아소카왕은 8개의 사리탑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탑을 열어 전국에 사리를 나누어 봉안토록 하였습니다. 이때 8만 4천의 불사리탑이 건립되었으며, 불교가 전해지는 곳마다 사리탑이 세워지고 이를 중심으로 불교신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불사리는 석가모니 부처를 상징하는 성보(聖寶)가 되어 인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으로 전해져 사리신앙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산차대탑

우리나라의 5대 적멸보궁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은 신라 자장율사가 중국의 오대산(청량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지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신라로 들여와 봉안한 곳을 말합니다.

인제 설악산 봉정암, 평창 오대산 중대, 영월 사자산 법흥사, 정선 태백산 정암사, 양산 영취산 통도사에 봉안되고 있습니다. 적멸보궁은 불교인의 성지이자 순례처로서 신봉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적멸보궁 5곳 중 4곳이 강원도에 위치합니다. 이는 예부터 강원도의 산하가 신성시된 까닭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적멸보궁 중 오대산, 설악산, 태백산은 국립공원으로, 영취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가에 의해 특별히 보호받고 있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산수가 수려한 것엔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 오대산 중대

중대 적멸보궁은 오대산 비로봉의 줄기가 오대천을 향해 뻗어 내려가고, 주변 봉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해발고도 1,189m에 남동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대산사적」에는 중대 진여원, 동대 관음암, 남대 지장암, 북대 나한암, 서대 미타암이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중대 사자암 및 상원사, 동대 관음암, 남대 지장암, 북대 미륵암, 서대 수정암이 있습니다.



중대 적멸보궁

적멸보궁의 뒤편 봉긋한 부분이 부처 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석비(마애불탑)가 세워져 있습니다. 적멸보궁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마애불탑 주변 어딘가에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다고 하니 더욱 신비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적멸보궁 불탑

강원도 정선 태백산 정암사

태백산의 진신사리는 산비탈에 축대를 쌓고 탑(수마노탑)을 세워 사리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여느 사리들과 마찬가지로 자장율사에 의해 봉안 되었으며, 탑해체 당시 나온 탑지석*은 탑의 조성 역사, 조탑 기술 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수마노탑은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다보탑을 포함해 탑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희소한 탑입니다. 정암사의 적멸보궁은 여느 적멸보궁과는 달리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지 않고, 1771년에 고쳐 지은 것으로 보아 18세기 초에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탑지석: 탑의 건립 이유, 수리 기록 등을 적은 돌로 탑 안에 넣어둠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정암사 적멸보궁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

법흥사는 자장율사가 나라의 흥망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사자산 연화봉에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하고, 흥녕사(興寧寺)라는 명칭으로 창건한 곳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月精寺)의 말사이자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의 하나로 대표적인 불교성지입니다. 적멸보궁 왼쪽 뒤에는 자장율사가 수행했다는 토굴 자장굴(慈藏窟)이 있고, 왼쪽에는 진신사리를 넣어 왔다는 석함(石函)이 남아있습니다. 적멸보궁 뒤에는 부도탑이 있는데 여기에 진신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합니다.



영월 법흥사 석분 정경

강원도 인제 설악산 봉정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은 적멸보궁으로 설악산국립공원에 위치합니다. 봉정암은 백담사에 속한 암자로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몇 차례 재건되었습니다. 진신사리를 봉안한 5층석탑은 봉정암 경내에 있는 높이 3.6m 규모의 석탑으로, 이곳에는 사리 7과가 봉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

경상남도 양산 영취산 통도사

영축총림 통도사는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불사리를 금강계단에 봉안하였다고 하는 불사리 계단입니다. 이곳에 진신사리를 봉안하였기에 삼보사찰(三保寺刹) 중 불보사찰(佛保寺刹)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인 신골(身骨)인 사리를 봉안함으로써 대웅전 내부에는 불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내부에는 불상 대신 불단(佛壇)이 조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불가에서 금강계단은 승려가 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수계 의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부처님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금강계단 사리탑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